

타자를 범주화하는 문화적 태도에 대한 현상학적 비판*

-르네 지라르의 모방이론을 중심으로-

신용식

(부산장신대학교)

1. 들어가기
2. 세계화 현실 속에서의 문화의 위기
3. 문화적 차이를 다루는 사회적 메커니즘
 - 3.1. 문화적 다양성과 모방욕망
 - 3.2. 모방의 해석학적 접근과 모방의 윤리적 요청
4. 결론 및 추후 연구를 위한 고찰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22S1A5B5A16050750)이며, 2022년 11월 26일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3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현상학”은 현상학의 창시자 에드문드 후설(Edmund Husserl)에게 국한한 개념이라기 보다는 그로부터 파생된 현상학적 고찰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렇기에 “현상학” 자체를 자세히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화형식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들추어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밝혀둔다.

국문초록

태 판 속 검토 , 속 우 회 회-
 를 태
 르 필요 련 회 절 메커
 능 . , 욕망 욕망 그
 바 그 . 왜곡 욕망
 입견 오염 때 질 마 할 없 .
 그렇 르 삼 무 건
 욕망 복 듯 할 , 최 객 , 곧
 판 통 그 욕망 할 판 능력 필요 밝

, , 태 , , 회 ,

를

(2021: 98-100).

: " "(Schafer 2014)

?

?

싸

-

-

케
(Globalization)
긴
(Shaules 2007: 14).
짜
뒤섞
뒤섞
를
김
긴
칼 (Karl Popper)
허 폐
달 (Popper
1963: 1-7).
즐
문 달
?

달
 단합
 단합
 왜냐
 단합
 단합
 달
 ?
 단
 ?
 1923-2015) " (Mimesis Theory) (René Girard
 (Girard 2004).
 욕
 M. Thomson) 톰슨(Cameron
 (Thomson
 2014: 19).
 ()
 " "(Scapegoat)
 욕

1) 연구자는 이전의 한 연구에서 왜 타자에 대한 절대적 환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왜 폭력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를 논한 바 있다(신용식 2022).

"(Girard 1982: 271)

"(Girard 1982: 271)

" "

릴

[...]

"(Girard 2001: 58)

꼬

2

핍

허

긴

3

짓

2

긴

1960-1970

긴

긴

?

눈

힙쓸

냐

꼈

맹

찌

케 (Thomas Piketty)

(Piketty

2013: 37-40). 케

10%

90%

?

칼

() 짓

삐

(Pierre Bourdieu)

(Bourdieu 1979a & 1979b).

세년 날(Shannon K. O'Neil)

곧 (Regionalization)

왜냐

꼈

촌
군
· 날 ' , , 룩
1/5 '(O'Neil 2022: 23),
(, ,) -
(O'Neil 2022: 14-18).
날 ,
(Internationalization)
" "
(O'Neil 2022: 30).

긴

날

폴 쉐 (Paul Schafer)

" "

" "

(Schafer 2014:
951-1043, 1874-2429).

" []

. [] (set)
(Schafer 2014:
2090)."

뜨릴 혀
곧
뛰

긴

쉐

19

침

눈

.2)

2) 2020년 5월, 미국의 The Council of Foreign Relations는 “The End of World Order and American Foreign Policy”라는 특별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에서 9/11 사태부터 감지되기 시작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막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https://cdn.cfr.org/sites/default/files/report_pdf/the-end-of-world-order-and-american-foreign-policy-csr.pdf (2022.10.12. 접속) - 하지만 일찌감치

덕
 협
 틈
 협
 21
 30 19
 (Pankaj Mishra) (Mishra 2017: 204).
 의
 ?
 " 왜
 나
 염
 혀
 염

1983년에 임마누엘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자본주의 문명 속에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로 인하여 일부 국가로의 인구유입이 가속화함으로써 국가구조의 효율성의 저하되어 중국에는 자본주의 문명이 막을 내릴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Wallerstein 1983: 173f). 월러스틴은 (비록 정치적 맥락에서 논의를 전개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이 집단화되어 사회 속의 또 다른 제3세계화로 이어짐으로써 사회-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40년 전의 학문적 예측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관점에서 조망해 본다면, 그 분석적 예측의 정확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역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정치적 통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Oliver Nachtwey) ‘ ,

협

폐

(Nachtwey 2017: 257). 곧

폐

탈

맹”(Nachtwey 2017: 257) 염

곧

의

.3)

염

‘폐

염 혀

폐

폴 쉐

긴

폐

3) 인체의 면역기전에 대한 연구는 강희경(2008)을 참고할 것. 타인의 장기를 이식한 환자의 경우, 인체는 원칙적으로 그 이식된 장기를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하는데, 이 공격하는 면역반응(곧 이식거부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면역억제제를 복용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예방접종이 항원-항체 반응에 기반 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하지만 이 면역체계의 비정상적인 기능이 자신의 건강한 세포 및 기관들을 향할 때에는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 염증질환 등)으로 이어진다.

긴

?

뛰

?

욕

3

(3.1)

(3.2).

욕

욕

욕

걸

힘 텀(Joachim

Duyndam)

" "

욕

(Duyndam 2019: 242-246).

봄

욕

짓

뒤엎

욕

(Girard 1961: 56-58).

짓

왜냐

욕

짓

필

욕

욕

(Girard 1961: 167f).

욕

허

(Girard 1961: 179f). '허

욕

빌

'(Girard 1961: 45). 허

욕

욕 "

" "

(Girard 1961: 67f).

욕

욕

4)

(Girard 1961: 388-389). 허

짓

욕

곧

4) 이후에 지라르는 폭력과 성스러움에서 자아와 타자의 완벽한 일치상태를 “짝패”(double)라고 칭했다. 이 짝패의 상황 속에서는 ‘자아와 타자 사이의 모든 차이들이 소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믿는다(Girard 1972: 122). 여기에서 지라르는 자아와 타자 사이에서 차이가 소멸되었음에도,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고 믿는 이 짝패의 “환상”(Girard 1972: 122)을 고발한다. 짝패는 곧 자신의 참된 모습을 타자의 타자됨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획득하려다 결국 자신마저 상실해버리는 병리적인 이중상실의 전형이다. 그래서 지라르는 “모방은 자신의 실패를 낳을 것이며, 이 실패는 역으로 모방 경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Girard 1972: 222).

(Girard 2004: 267-268).

욕

(Girard 1972: 236-242).

(2011).

왕

- 벨

등

(Girard 1972: 87-90, 280-281, 304-305, 459-462; 2008: 128-155; 2011: 82).

긴

김

"

"

(Girard 1972: 77).

(Lascaris 2013:

237),

"

", 곧

(Girard

1982: 30).

혐

의

?

긴

떨

캔

캔

(Girard 2001: 16).

혈

폐

괴

왜냐

너,

렸

짓

짓

염

6)

캔

냈

[]

[]

(Girard 2001: 48)."

6) 문화가 그 속에 차별의 모방적 메커니즘을 감추고 있음을 간파한 사람은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이다. 일찌감치 부르디외는 “문화계임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천명하면서 “문화자본의 획득 정도와 이 자본을 갖고 문화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 조건에 따라 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심지어는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집단들 간의 관계가 은폐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Bourdieu, 1979a: 35).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이전의 저작임에도 문화는 그 속에 구별짓기의 욕망들이 상호 충돌하는 게임이라는 그의 지적은 거의 반박 불가이다. 우선 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자에 대한 경계심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타자에 대한 환대 및 관용이 지극히 낭만적으로 들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타자의 윤리에 대한 의식의 부재라기보다는 인간의 본래적인 한계성과 연관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듯하다. 그 예도 불구하고 결 간과 수 없는 것은 문화가 일종의 학습되고 전승된 사회적 태도로서 이해 경우일 것이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행위자가 사회세계에 대한 실천적 지식에서 활용하는 인식구조는 내면화되고 육화된 사회구조”라고 강조하고 있다(Bourdieu 1979b: 765).

낮 (Girard 2001: 55, 59).

" "

(Girard 1972: 410; 2008: 204).

" []

"(Girard 1982: 58).

묵

곧 (Girard 1982: 39).

곧

염

를

샘

?

년

곧 ()

”(Girard 1982: 345)

혀

떨

힘 ()

앙

) ” ”(클) 곧 힘

(Girard 1999: 238). 뿐

(Girard 2004: 276; 2013: 322).

덜 힘 덤(Joachim Duyndam)

냈 (Duyndam 2019). 덤

욕 욕 (Duyndam 2013: 253).

냈

덤

(Duyndam 2013: 254).

2

폐

넋

쭈

3

긴

욕

긴

욕

욕

넋

쁜

끔

힘 덤

욕

" "

싼

잠

분

욕

왜

e

성 명 신용식
소 속 부산장신대학교 신학과 학술연구교수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451번길 9, 106-104
전자우편 sinysik0292@naver.com

| Abstract

A Phenomenological Criticism of cultural attitude categorizing others - Focusing on René Girard's Mimesis Theory -

Shin, yong-shik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This study aims not only to critically analyse our society's socio-cultural attitudes dealing with cultural diversity in the globalized reality, but also to present academical necessity of the intercultural perspective as attitude change.

Girard believes that culture originated from social processes of imitating others and from mechanism to control the degree of imitative behaviors. It can be said that culture functions as a system for controlling imitative desires.

Phenomenologically, the legitimacy of imitative desire is determined by whether the consciousness intentionally coincides with its object. But the distorted desire cannot correspond to the essence of its objects. Because intentionality of the consciousness is distorted by prejudiced Pre-Understandings.

As a result, this study, focusing on Girard's Mimesis Theory, aims to clarify that we need to enhance our judgment ability to face essential facets of desires through phenomenological Epoche, so rather than formally and superficially imitating others' mimetic desires.

Globalization, culture, attitude change, phenomenology, scapegoat, imitation/mimesis

투고일 2023. 02. 16 / 심사일 2023. 03. 09 / 심사완료일 2023. 03. 15